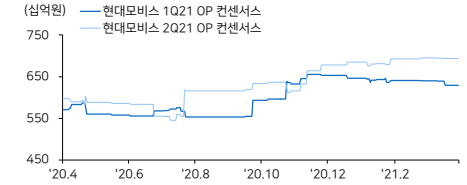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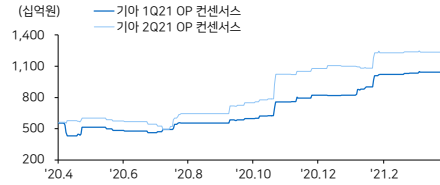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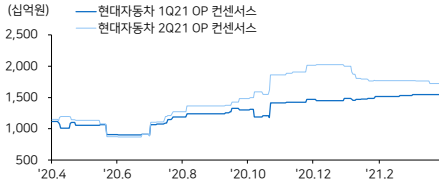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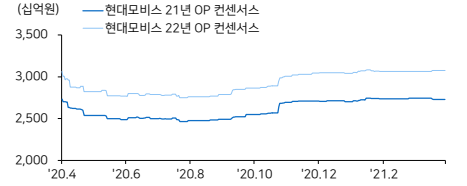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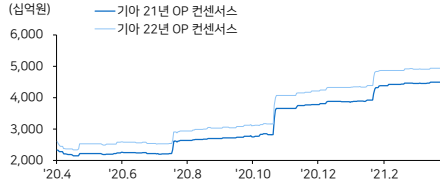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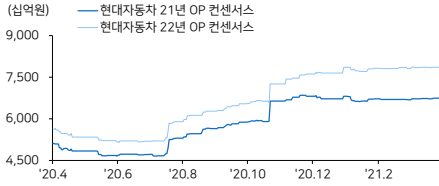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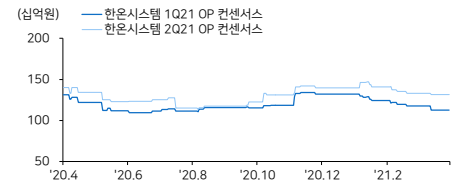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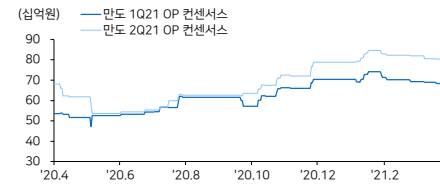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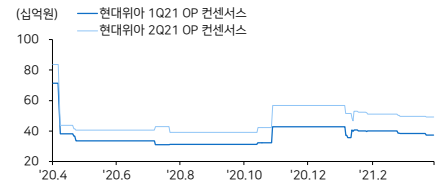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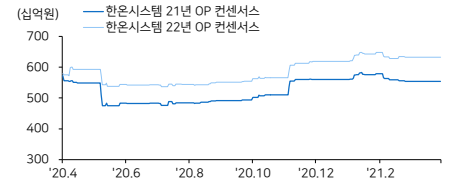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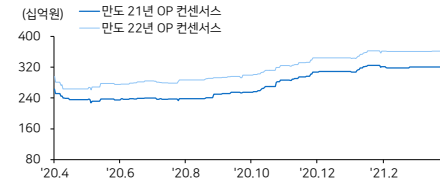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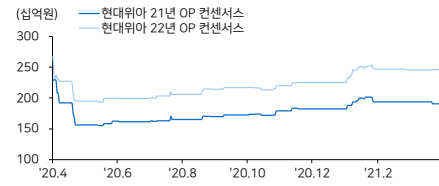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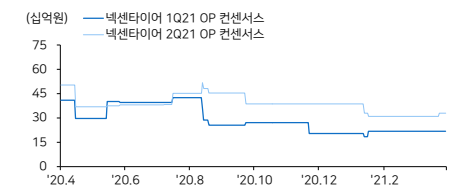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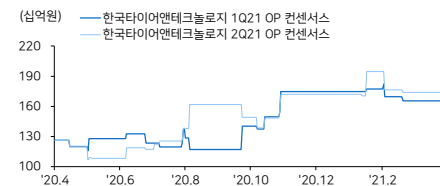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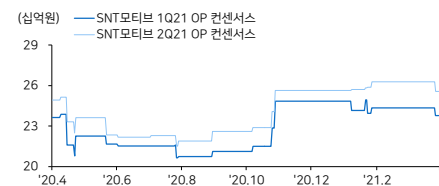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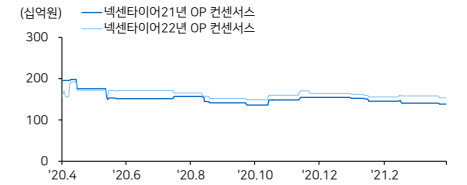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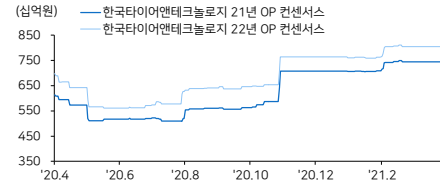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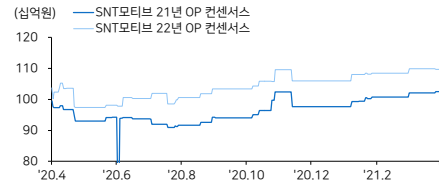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중국 진출 본격화...「고급화·전동화 전략」(한국경제TV)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5와 EV6를, 제네시스는 최근 콘셉트 이미지를 공개한 모델 '엑스'를 내세워 테슬라가 독주체제를 구축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는 계획. 중국은 BEV 판매량이 유럽의 두 배를 웃돌 만큼 큰 시장으로 성장. <https://bit.ly/3sYXBic>

SK·GS·포스코·한화·현대차 등 탄소중립 연맹 (매일일보)

SK, GS, 포스코, 한화,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목표의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참여기업 대표들은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약서」를 체결,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할 계획. <https://bit.ly/3dEiLsJ>

완성차 이어 부품업체도 '값싼'...차량용 반도체 품귀 일파만파 (뉴스1)

현대자동차·기아·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업체에 이어 부품업체까지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출몰이 생산차질을 빚는 중.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53개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는 반도체 수급차질로 생산 감축 중이라고 응답. <https://bit.ly/3rY1Is9>

포드·폭스바겐 지원받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코 AI, 올해 상장 추진 (오투데이리)

구글 웨이모 전 HW개발책임자 세일스키와 우버 전 엔지니어 랜더가 공동설립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Argo AI가 연내 상장을 추진 중. 포드와 폭스바겐에게 총 26억 달러를 투자받고, 자율주행 개발 관련 협력 중. <https://bit.ly/3f7R7hAZ>

현대차, '메이드 인 인디아' SUV 누적 생산 100만대 돌파 (THE GURU)

글로벌 전략 모델인 '크레타'의 현지 인기와 수출 확대로 현대차 인도법인 첸나이공장의 누적 SUV 생산량이 100만 대를 돌파. 현대차는 최근 첸나이공장의 생산규모를 3만대 늘렸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 SUV 시장 1위를 계획. <https://bit.ly/2PxhWpJ>

한국타이어, 5월부터 미 트럭 등 상용차 타이어 가격 5% 인상 (THE GURU)

한국타이어 북미법인인 5월(현지시간) 내달부터 상업용 자동차 타이어 가격을 5% 올리기로 함. 인상률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신차용 타이어뿐 아니라 교체용 타이어 역시 공급 단가를 소폭 올릴 예정. <https://bit.ly/3t07aa0>

생존 위태로웠던 '전' 전기차 3인방의 변신 (머니투데이)

니오, 샤오미, 리상은 지난해 초에만 해도 생존마저 불투명했으나 지난해 각각 152억 위안, 55억 위안, 93억 위안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실적이 안정화되는 중.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yoy 11% 증가하여 137만대를 기록. <https://bit.ly/3moQwhD>

오로라, 불보트력과 '맞손'..자율주행 트럭 경쟁 불 붙었다 (데일리카)

글로벌 대형 트럭 제조사들이 로보택시와 군집주행 등 장거리 화물용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IT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 중. 미국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 오로라는 스웨덴 불보트그룹과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https://bit.ly/3dESW7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